

## 眩氣症에 관한 낱말의 유래

高神大學 醫學部 耳鼻咽喉科學教室

李鍾瀓

### Origin of Terminology about Dizziness

Jong Dam Lee, M. 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Kosin Medical College

眩氣症은 1977年 대한의학협회에서 발간한 醫學用語集 第1輯에는 Vertigo : dizziness 현기(증)(眩氣[症])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이 나오기 이전 白萬基編著 新耳鼻咽喉科學에는 眩暈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 日本語인 眩暈이 韓國語로 眩氣(症)으로 바로 잡은 셈이다. 眩氣를 나타내는 낱말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영어로 "dizzy"와 "giddy"의 두 形容詞에 對해서 고찰해 본다.

"dizzy"는 病的狀態의 어지러움을 말하고 "giddy"는 급속한 回轉運動後의 어지러운 狀態 즉 ballerina가 回轉하는 춤을 춘 직후의 피하고 싶고 억제하고 싶은 상태를 말한다. 古代英語로는 dizzy는 「바보스러운」의 뜻이었으며 dizzy와 같은 語源인 Netherland語의 duizelig에도 "우둔한, 바보같은"의 뜻이 있었으나 지금은 giddy(눈이돈다. 어지럽다)란 뜻 밖에 없다.

Giddy로 古代英語에서는 "神이 주는 惡靈"에 걸려 미친듯이 화를 내고 있는 사울왕의 상태에 대해서 쓰인 낱말이다(舊約聖書). 그 단어는 gid와 같은 語源이며 "神들려 있다." "神이 덮친 상태"라는 뜻이 있다.

이 양 단어는 현대에서는 女性에 관해서 "음란하다"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으므로 여기에는 stupidity와 vertigo와의 관계가 있다.

덧붙여 말하면 "神이 덮친상태"란 생각을 英語에 또 하나의 單語를 만들게 하였다. 즉

Greece語의 같은 뜻에서 유래된 "enthusiasm" (열심, 열중)이다. 오늘날의 이 단어의 뜻과 같이 온전한 뜻으로 되기 이전의 이 낱말의 뜻은 "豫言者" 또는 "詩人과 같은 狂氣"의 뜻이었고 17,8世紀의 清教徒의 過激派의 宗教의 狂信을 비판하는 의미로 쓰여졌다.

眩氣의 상태를 의미하는 慣用句로는 "my head is swimming(swirling)" "my head is spinning"(1819年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음) "my brain is reeling," "my head is going round"(1897年) 등이 있다. 이런 경우 swim은 물질의 흐름이 혼란스럽다는 뜻인 "everything is swimming(or floating) before my eyes"와 같은 句와 관계가 있다. 실지로는 원동사는 swime은(or swimble)이며, 사투리로서 남아있으며 같은 뜻으로 Netherland語의 .zwijmen, zwijmeleu, 독일어의 사투리인 schweimen, schwemlen과 語源이 같다.

독일어의 標準語로는 이와같은 語源인 동사인 schwindeln(languish=쇠약하다)의 뜻인 영어의 swindan과 같은 어원인 schwinden에서 만들어진 낱말을 사용했었다. 이것을 古代英語의 名詞인 Swinglung(眩氣)와 가까운 관계가 있다. (外見上 眩氣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 같으니 獨逸語의 Schwindler=詐欺하는 사람은 영어의 swindler=詐欺師가 되고, 이 단어에서 swindle=속임수가 탄생하였다.

元來「빙빙돈다」는 뜻의 Latin語인 *vertigo*는動詞인 *vertere*(돌리다, 돈다), *vertex*(頂點, vortex로도 脊)와結合하여 소용돌이, 회오리바람, 頭頂部, 天頂, 三角形의 頂點(이 단어에서 *vertical*=수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등 여러가지 뜻이 있다.

Greece語에서 온 *scotoma*(暗點, Greece語로는 眩氣) *scotodinia*(失神性眩氣)는 「어둡다」는 단어에서 만들어졌으며 일시적인 의식상실을 의미하는 *black-out*와 같은 개념의 단어이다.

때로는 *vertigo*와 같은 뜻으로 쓰여진 적이 있는 *megrism*은 偏頭痛의 뜻으로 쓰여졌을 때 France語인 *migraine*으로 대체되었다. 이 단어는 Latin語의 “*hemicrania*”(偏頭痛)에서 유래하였으며, *hemicrania*는 머리는 片側에만 영향을 받고 있다는 *half-cranium*이란 뜻의 Greece語에서 유래된 것이다.

複數形의 *megrims*는 현재 鬱病의 發作 또는 동물의 *stammers*(말 등의 현기증)의 뜻이며 *stagger*(비틀거리다)는 원래 *stacker*의 뜻으로 古代 Norway語의 *push*(밀다), *push off balance*(밀어서 균형을 잃게하다)의 의미의動詞에서 온 것이다. *Stagger*는 *stick*와 同語源임.

*vertigo*는 fainting(기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faint란 날말의 역사는 *swindle*의 반대인 것 같다. 이 단어는 France語의動詞인 *feindre*의過去分詞에서 온 것이며 英語形은 「~인 것 같이 하다. ~인 척하다. ~같이 보이게 하다」의 뜻인 *feign*이다. 다른 칠자인 *feint*는 권투나 펜싱에서 「때리는 흉을 내다」의 의미이다.

France語의 *fingere*는 *fictus*라는過去分詞를 가진 Latin語에서 유래된 것이며 *fingere*는 form, mould(반죽해서 만듬), knead bread(빵을 반죽하다) 그리고 contrive(공부하다),

*invent*(발명하다), *pretend*(~인 것 같이 흉내를 내다)의 의미가 있다. 이 단어에서 *figure*(형), *figment*(허구), *fiction*(소설)의 영어가 생겨났다.

France語의 名詞인 *feinte*와 動詞인 *feindre*는 動物이 危險을 느꼈을 때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跛行하는 뜻 이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그러나 英語의 形容詞에는 그 이상의 뜻이 있다. 出發點은 아마도 痢病의 뜻이 있어서 이 形容사는 게으름(idle, sluggish)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더욱 나아가 「弱한, 病弱한」의 뜻으로 또 「卒倒할 것 같은」뜻으로 발달하였다.

이 單語는 또 非技術的 방향으로도 진행하여 *languid*(몸이 무겁다), *feeble*(연약하다)이란 뜻이 되어 다시 *indistinct*(明確치 않은)의 의미가 되었다. 이 形容사에서 動詞가 만들어져 지금은 詩에서만 사용하는 *swoon*(卒倒하다)으로 되었으며 *swoon*은 “i(n)swoon”이나 “a-swoon”(on sleep에서 asleep)의 前置詞句로 생각되었다. *swoon*은 古代英語의 過去分詞 *geswogen*, *aswogen*에서 유래된 것이며 명사와 동사로 발전하였다.

귀에서 발생하는 비슷한 질병으로 “ringing(또는 singing, buzzing) in the ear(耳鳴)”이 있으며 中世에서는 “tingling” 또는 “tinkling in the ear”로 불리웠다. 이 *tingling*과 *tinkling*은 “tin-a-ling” Latin語의 동사 *tinnire*와 같은 擬聲語이다. 이 말에서 醫學用語인 *tinnitus*가 생겨났다.

약하게 울리는 소리를 뜻하는 날말로서 Latin語에서는 동사인 *tintinnine* 또는 *tintinnare*가 있고 France語는 *tintin*, *tintouin*(=耳鳴)이 있다. 아주 작은 소리를 내는 “종”은 *tintinabüü* 란 귀여운 單語도 있다.  
(Hugh E. Wilkinson에서)